

焦点企劃：統一을 지향하는 南北技術協力體制 構築 方案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協力

姜 正 模

(慶熙大學校 教授)

### 1. 머리말

北韓의 무역 추이를 보면 1960년대까지 무역 규모는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중소 분쟁으로 양국의 원조가 크게 감소하여 교역 대상국을 다양화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개발 도상국들과의 교역을 증가시켰으며 1980년 10월에는 友好적인 資本主義 나라들과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천명하였으나 아직도 소련과 중국에 무역이 편중되어 있다. 1984년부터 조심스럽게 추진해 온 경제 개방화로 1984년 9월 합영법을公布하였고 1987년 4월 채택된 第3次 7個年 經濟計劃(1987~1993) 기간 동안에 무역 규모를 기준년도의 3.2배로 증가시킬 것을 目標로 설정하고 무역 및 대외 경제 협력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 2. 北韓의 貿易規模

그러나 最近의 기본 경제 지표에 입각한 경제 상태는 공업 생산액의 증가가

〈표1〉 北韓의 대외 무역 추이

單位：억 달러, %

	1975	1980	1985	1988	1989	1990
총수출(A)	8.1	14.4	13.5	20.3	19.1	20.2
총수입(B)	10.9	17.4	17.2	32.1	28.9	26.2
총무역액(C=A+B)	19.0	31.8	30.7	52.4	46.0	46.4
무역수지(A-B)	-2.8	-3.0	-3.7	-11.8	-9.8	-8.0
GNP(D)	94	135	151	206	211	231
무역 의존도(C/D)	20.2	23.6	20.3	25.4	22.7	20.1

자료 출처：國土統一院, JETRO

크게 낮아지고 제 3차 7개년 계획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60% 달성) 예 산수입의 증가율도 1980年代 후반에 더욱 크게 낮아졌고(5% 내외), 전산업의 생산 기반 및 기술의 낙후, 국제 경쟁력 약화와 불리한 世界政治 및 경제 환경으로 총 무역 규모는 1988년 52.4억 달러를 이룬 이래 감소하여, 1990년에는 46.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北韓이 대외 경제 교류를 강화하게 된 배경은 1) 무리한 자본 및 설비 도입으로 발생한 外債와 1984년부터 外債 元利金償還이 연체되었고 外貨不足으로 對西方 신규 차관이 불가능하여 채무 상환의 부담이 없는 합작 투자를 유치하고, 2) 과중한 外債와 외화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경제 교류, 특히 수출 증대가 꼭 필요하며 輸出擴大를 經濟發展의 수단으로 하여 만성적인 經濟沈滯를 벗어나고, 3) 國際社會에서 政治的 및 外交的 支援의 能力이 實

質的인 經濟協力이 없이는 不可能하다는 國際的인 現實과 4) 소련과 中國의 경제 약화로 실질적 원조 감소에 기인한다.

### 3. 北韓의 貿易構造

主要 貿易對象國은 蘇聯, 中國, 日本으로서 1986~89년 간에 총교역액의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1989년에 약 72%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香港과의 貿易도 꾸준히 增加하여 1989년 3.4%를 기록하여 제4위의 主要 交易對象國임을 알 수 있다. 특히 蘇聯은 계속하여 北韓의 最大交易對象國으로서 1989년 50%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뒤이어 中國은 12%, 그리고 日本은 10%를 차지하고 있다. 西獨과 싱가포르와의 總交易額이 그 뒤를 따르고 있어 1989년 각각 2%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北韓의 貿易은 地域的으로 크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할 수 있다.

北韓의 總交易額의 增加率은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社會主義國家와이 交易量增減에 크게 좌우되었지만 最近의 開發途上國 및 日本과의 交易量 伸張이 交易減少의 둔화에 큰 役割을 하였다. 北韓과 東歐, 쿠바 및 몽고와의 交易은 1980년대에 들어 감소 추세에 있으나 最近에는 8% 내외의 安定的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貿易收支는 만성적인 赤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赤字幅이 深化되고 있어 經濟危機가 가중되었고, 總交易額의 20% 이상을 기록하였다. 1989년 이후 무역적자가 감소한 것은 外貨不足으로 輸入을 억제한 데 기인하고 있다. 北韓의 貿易赤字를 地域別로 보면 總交易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社會主義國家와의 交易赤字가 대부분이며, 특히 主交易國인 蘇聯과의 貿易赤字가 總貿易赤字의 70% 내외를 차지하는 심각한 상태이다. 中國, 香港, 西方先進國들과의 貿易赤字가 뒤를 잇고 있는 반면 日本과 타일랜드와의 貿易에서는 작은 액수나마 1987년 이후 貿易黑字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合營企業의 製品의 輸出增大에 연유한다. 中東, 아프리카, 美洲, 호주 地域과도 慢性的인 貿易赤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美洲와 호주 지역은 總貿易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폭의 貿易赤字를 보였다.

北韓의 輸出商品構造는 SITC 大분류로는 비식용 원재료(2), 재료별 제조 제품(6) 및 잡제품(8)의 比重이 1989년 각각 11.9%, 26.2% 및 38.7%로, 이들이 77%에 달하는 높은 比重을 차지하고, 식품 및 산동물(0)의 8.6%와 기계 및 운송 장비(7)의 8.7%를 합하면 구성비가 90%가 넘고 있다. 輸出商品構造의 推移는, 잡제품은 1987년 14.7%에서 1989년 38.7%로 急增하였고 다른 항목은 기타 상품(9)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2> 北韓의 輸出入商品 構成(1989)

單位：백만 달러, %

SITC	商品名	輸出額	構成比	輸入額	構成比
0	식품 및 산동물	113	8.6	53	3.4
1	음료 및 담배	1	0.1	7	0.4
2	비식용 원재료	156	11.9	99	6.4
3	광물성 연료, 운할유 및 관련 물질	31	2.4	247	16.0
4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	0	0.0	11	0.7
5	화학물 및 관련 제품	27	2.0	86	5.5
6	재료별 제조 제품	345	26.2	525	33.9
7	기계 및 운수 장비	114	8.7	421	27.2
8	잡제품	510	38.7	88	5.6
9	기타 상품 및 취급물	18	1.4	12	0.8
합	계	1,315	100.0	1,552	100.0

資料：최신림, 北韓의 貿易構造(産業研究院 1991. 11. pp.16~19)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ITC 총분류로는 미가공 비료 및 미가공 광물(27)이 8.8%, 철 및 강(67)이 12.9%, 비철금속(68)은 10.3%, 의복 제품 및 의복 부속품(84)이 37.9%,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03)이 4.8%, 전기 기계 장치, 기기 및 부속품(77)이 3.9%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달하고 있어 輸出商品構造가 크게 偏重되어 있다. 한편 이들 중 비철금속과 의복 제품 및 의복 부속품을 제외하고는 비중이 減少하였다.

輸出商品構造는 1989년 광물성 연료 및 운할유(3)가 16.0%, 재료별 제조 제품(8)이 33.8%, 기계 및 운수 장비(7)가 27.2%로 이들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고 재료별 제조 제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분류로 보면 1989년 석유 및 석유 제품(33)이 9.9%, 섬유사, 직물 및 관련 제품(65)이 23.1%, 곡물 및 그 가공품(04)이 2.1%, 석탄 및 코크스(32)가 6.1%, 특수 산업용 기계(72)가 6.4%, 도로 주행 차량(78)이 5.5% 등을 차지하였고, 광물성 연료(3)의 輸入이 빠르게 減少한 반면 섬유사, 직물 및 관련 제품(65), 특수 산업용 기계(72), 도로 주행 차량(78) 등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따라서 北韓의 貿易商品構造는 1차 商品과 輕工業製品을 輸出하고 생산자 財貨를 輸入한다는 의미에서 수직적 貿易關係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무역상품 구조와 비슷하나 섬유산업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工產品의 貿易比重이 여타 開發途上國의 경우보다 높다.

## 4.北韓의 對外經濟協力

北韓의 對外經濟協力の 特徵은 貿易과 마찬가지로 蘇聯과 中國의 比重이 각각 46%와 18%를 차지하여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北韓과 蘇聯의 經濟協力を 보면 蘇聯이 1945년 해방 이후 지금까지 長期借款 등 支援額의 약 20%는 상환을 받았으며 7.5%는 상환 면제 조치하고 현재 미상환된 外債는 4% 정도의 낮은 金利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990년 말의 蘇聯外債는 39.4억 달러로 EIU는 推定하고 있다. 1985년 12월에 체결한 北韓과 蘇聯의 經濟協定에 의하여 1986~90년간 蘇聯이 支援하기로 한 金額은 1억 루블 정도이며 건설이 完了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經濟協力形態가 변하고 있다.

最近의 北韓과 蘇聯의 經濟協力形態를 보면 合營形態를 들 수 있으며 蘇聯의 原料提供에 의한 北韓의 完製品生産으로 原料가 부족한 北韓이 갖고 있는 剩餘勞動力을 활용하는 形態이다. 또한 北韓의 勞動力을 사용하는 것으로 遠東地域에서 채소를 재배하고 시베리아 지역에서 伐木作業에 참여하고 있고, 여기에서 얻어 지는 外貨는 外債償還과 석유 같은 필수 원자재 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앞으로의 북한과 소련의 經濟協力は 住民生活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호 이익이 되는 새로운 協力方案을 모색하여 추진시켜 나갈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예로는 北韓油類 生産施設活用, 蘇聯의 原料供給에 의한 完製品生産 및 輸出, 蘇聯內에서의 北韓 勞動力 利用 등을 들 수 있겠으나 蘇聯聯邦의 와해로 인하여 그 展望이 불투명한 점이 적지 않다.

한편 西方國으로부터의 借款導入은 1970년에 300만 달러를 시작으로 1975년 外債問題가 發生할 때까지 12.4억 달러에 달하였고 日本이 2.8억 달러로 가장 많은 借款을 제공하였으며 西獨이 그 뒤를 이어, 北韓의 日本 및 西歐諸國에 대한 外債問題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北韓의 만성적인 貿易赤字 및 連滯利子の 累積과 經濟成長의 不振은 總外債殘額을 계속적으로 누증시켜 1987년 47.8억 달러, 1988년 52.0억 달러, 1989년 67.8억 달러 및 1980년 76.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1990년 總輸出額의 거의 4배에 달하여 外債償還能力을 상실하였을 정도로 外債問題의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北韓의 지금까지의 合營實績은 北韓內誘致가 135건이고, 海外進出이 40여 건으로 거의 총 1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合營內容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實績은 北韓內 유지가 66건이고, 海外進出이 21건 등 87건이다. 北韓內에 유지한 合營企業中 50건(77%)은 朝總聯系이며 해외로 진출한 合營企業中 13건(62%)은 蘇聯에서 이루어졌다. 年度別로는 1985~86년 간의 9건, 1987년에 17건, 1988년 27건, 1989년 2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1990년에는 7건(조총련, 소련, 폴란드 각 1건 동독 4건)으로 실적이 부진하였다.

〈표3〉 合作誘致實績

總件數	朝總聯	蘇聯	中國	其他
135	77	25	9	24

資料：統一院, 北韓經濟綜合評價, 1991. 8.

北韓은 外債의 심각함과 부진한 合營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外國으로부터의 合營投資를 積極的으로 誘致하기 위하여 中國에서 成功을 거두고 있는 經濟地區를 지정하여 運營할 計劃이다. 現在 進行中이거나 計劃中인 經濟地區는 남포, 남신의주, 용기-나진-청진 지구 등으

로 알려져 있고 이를 擴大할 可能性이 많다.

最近의 北韓經濟成長減少, 에너지 부족, 흉작으로 인한 식량 부족, 蘇聯의 붕괴로 인한 원조 감소 등은 올해의 經濟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經濟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北韓은 日本, 美國 및 南韓에 의존도를 높이는 經濟協力을 조심스럽고 제한적으로 擴大 및 開放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1년 12월 31일 「南北 사이의 和解와 불가침 및 交流·協力에 관한 합의서」에 南北이 서명한 데서도 엿볼 수 있다.